

문화전당서 펼쳐는 '아트 파티'

국제아트페어 '아트:광주:16' 광주비엔날레·한불수교 130년 각종 기념 프로그램으로 꾸며 작가 개인부스도 100개 설치

국립아시아문화전당에서 8월24일부터 28일까지 열리는 2016 제7회 광주국제아트페어 '아트:광주:16'은 '2016 광주비엔날레'(9월2일~11월6일), 한불수교 130주년을 기념하는 각종 프로그램으로 꾸며진다.

문화전당 라이브러리파크에서는 '비엔날레 특별전', '한불수교 130주년 기념전', '2016 조각 페스티벌', '유네스코 특별부스'가 열린다.

'비엔날레 특별전'은 국내 작가 30명, 외국 20명 등 총 50명이 참여해 현대미술을 선보이는 자리다. 비엔날레 개막에 앞서 세계 미술 흐름을 살펴볼 수 있는 기회다. '한불수교 130주년 기념전'은 한국과 프랑스 대표 작가들이 각국을 소개하는 작품을 출품한다. '2016 조각 페스티벌'은 11월 열리는 '2016광주미디어아트페스티벌'을 미리 만나보는 자리다. 조각과 미디어아트를 융합한 콜라보레이션 작품들이 전시될 예정이다. '유네스코 특별부스'는 전시된 작품 판매권을 유네스코에 기부해 어려운 환경에 처해있는 세계 어린이들을 돕기 위한 행사다.

콜라주, 판화 등 참여하는 각종 이벤트도 마련하며 행사가 풍성하게 꾸며진다.

눈길을 끄는 이벤트로는 '페차쿠차



제7회 광주국제아트페어가 오는 8월24일부터 28일까지 국립아시아문화전당에서 펼쳐진다. 사진은 역대 최대 관람객이 방문했던 지난해 행사.

(Pechakucha) 광주'가 있다. '페차쿠차'는 일본어로 '재빨리 재빨리'란 의미다.

8월 25~27일 오후7~8시 작가들이 관객 앞에서 프리젠테이션을 통해 작품 약 20점을 발표하는 행사다. 외국에서는 작업이나 작품을 설명하는 방법으로 각광받고 있다. 특별상에 뽑힌 작가는 광주 시립미술관에서 개인전을 열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며 우수상 20명은 2017년 광주국제아트페어 특별부스에서 초대전을

갖는다. 관객 호응도에 따라 선정하는 '인기 있는 작가상'도 수여한다.

또 미술애호가, 컬렉터, 문화예술 후원인을 위한 '8·24 광주 아트파티', '아트카페'도 마련해 메세나 운동을 확산시킨다. 지난해에서 호응을 얻었던 개인부스 운영도 주목받고 있다. 지난 아트페어는 개인부스를 처음 도입하며 관람객 7만여 명, 판매 작품 800여 점(30억 원)을 기록하는 성과를 냈다. 관람객은 역대 최대,

판매 실적은 두번째다. 이 때문에 벌써부터 작가들 사이에서는 개인부스에 참여하기 위한 열띤 경쟁이 보이고 있다.

지난 행사는 국제아트페어라는 이름에 걸맞지 않게 외국 유명갤러리 참여가 저조했다는 지적이 있었다. 올해는 해외 30개, 전국 40개, 지역 10개 갤러리가 참여할 예정으로 알려졌다.

문의 062-226-8057.

/김용희기자 kimyh@kwangju.co.kr

'인식'이 곧 '위로'라는 것

신형철 칼럼



최근 어느 글에 이런 문장을 쓴 적이 있다. "문학이 위로가 아니라 고문이어야 한다는 말도 옳은 말이지만 그럼에도 가끔은 문학이 위로가 될 수 있는 이유는 그것이 고통이 무엇인지를 아는 사람의 말이기 때문이고 고통 받는 사람에게서 그런 사람의 말이 진실하게 들리기 때문이다." 이 말에 보충설명이 필요해 보여서 뒤늦게 덧붙이려고 한다. 문학의 기능들 중에 위로라는 것도 있다는 데에는 동의하더라도, 그것이 가장 중요한 기능이라고 말하는 데에는 동의하지 않을 분들이 많을 것이다. 문학을 전문적으로 공부하는 분들일수록 더욱 그렇지 않을까. 인간과 세계에 대한 깊이 있는 '인식'을 전달하는 것이 문학의 더 본질적인 기능이며, 공감이나 감동이나 위로니 하는 '감정'의 작용들은 부수적이거나 보조적인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취지로 말이다.

굳이 말하자면 나 역시 그렇다고 해야 할 텐데, 그러나 이는 인식의 영역과 감정의 영역이 별개라는 전제 하에 서만 그렇다. 그러나 과연 그런가. 그들이 서로 뒤섞여 있는 것이라면? 감정의 영역에서 이루어지는 일도 인식의 영역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이라면? 결론을 먼저 말하자면 이렇다. 어떤 책이 누군가를 위로할 수 있으려면 그 작품이 그 누군가에 대한 정확한 인식을 담고 있어야 한다는 것. 위로는 단지 뜨거운 인간애와 따뜻한 제스처로 가능한 것이 아니다. 나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사람이 나를 위로할 수는 없다. 더 과감히 말하면, 위로받는다라는 것은 이해받는다라는 것이고, 이해란 곧 정확한 인식과 다른 것이 아니므로, 위로란 곧 인식이며 인식이 곧 위로다. 정확한 인식한 책만 정확히 위로할 수 있다.

이쯤에서 한 권의 책을 소개하려고 한다. '슬픔의 위안'(현암사, 2012)이라는 책이 있다. 지나가듯 몇 번 언급한 적이 있지만 오늘 이 지면은 이 책을 위해 바치려고 한다. 좀 호들갑스럽게 말하자면 이 책은 최근 몇 년을 통틀어 내가 읽은 최고의 논픽션

(에세이)이다. 이 책을 최상의 유려함으로 옮겨낸 번역자는 역사후기에서 자신이 20년 넘게 우울을 앓았는데 이 책을 번역하면서 "큰 위로"를 받았다고 적고 있다. 어쩌서 그런 일이 가능했을까. 위에서 말한 대로다. 저자인 론 마라스코와 브라이언 서프가 누구보다도 정확하게 슬픔의 본질에 대해 설명하고 있기 때문이다. 제대로 아는 사람만이 '제대로 알' 그 자체로 누군가를 위로할 수 있다. 두 저자가 연출자이고 작가가이기 때문에 특별히 슬픔에 대해 연구했으리라. 모르는 것을 표현할 수는 없으므로.

슬픔에 대한 어설픈 통찰을 늘어놓으면서 빨리 거기서 빠져나오라고 훈계하는 대목은 어디에도 없으므로 어디를 인용해도 상관없지만 내키는 대로 '휴식'이라는 제목의 챕터를 펼친다. "순수한 휴식은 슬픔의 고통을 치료해주는 가장 효과적인 치료제다. 그러나 슬퍼하는 사람이 참하기 어려운 것 가운데 하나도 휴식이다." 휴식이 왜 어려운가. 저자들은 "슬픔이 원기를 고갈시키는 것처럼, 좋은 감정 역시 에너지를 무척이나 소진시킨다는 점"을 지적한다. 많은 사람들이 내게 와서 따뜻한 위로를 건넨다. 그것은 고마운 일임으로 나는 좋은 감정으로 응대한다. 그러나 그 응대는 그 자체로 나의 감정적 자원을 크게 소모시키는 일이다. 그런 일들이 피곤하다고 느껴지면 고마워할 줄 모르는 나 자신에게 마음이 불편해져서 그것이 또 나를 갇아먹는다.

이런 대목만 보아도 이 저자들이 슬픔에 빠진 상태가 어떤 것인지를 잘 알고 있구나 하는 신뢰를 가질 수 있다. 저자들은 이렇게 말도 있다. 슬픔에 빠져 있지만 말고 외출도 하고 사람도 만나라고 말하는 이들의 헛소리에 신경 쓰지 말고. 당시에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은 그저 아무 일도 안 하고 쉬는 것일 뿐이라고. 집안일도 남에게 맡겨버리고 필요하면 수면제도 먹으라고. 수면제 대신 케모마일 차를 드셔보시라고 말하는 친척의 말은 샌드위치 그만 먹고도 장이나 훑으라는 말과 같으니 과감히 무시하라고. 함께 기도해주겠다는 사람이 있으면 이렇게 말하라고. "기도는 제가 직접 할 테니 설거지나 좀 해주시겠어요?" 이쯤 되면, 정확히 알지 못하면 제대로 위로할 수 없다는 말이 무엇인지 실감할 수 있지 않은가. 문학에서도 그렇고 인생에서도 그렇다.

<평론가·조선대 문예창작과 교수>

한진옥류 호남검무

19일 김자연 무용단 '검의 노래' 공연

'고(故)한진옥 선생의 전통춤을 만나다.' 김자연 무용단의 '검의 노래' 공연(사진)이 오는 19일 오후 6시 30분 빛고을시민문화관에서 열린다.

이번 공연은 타 지역 검무와 달리 춤사위가 섬세하고 장엄하며 화려한 기교가 돋보이는 고(故)한진옥류 호남검무를 통해 호남 유일 검무의 맥을 잇는다.

여수시립국악단의 특별공연 '타(打)'를 시작으로 고(故)한진옥류 살풀이, 입춤, 한량무, 처용무를 만날 수 있으며 마지막 피날레로 호남검무를 재현할 예정이다.

특히 선생의 조카이자 서술시무형문화재 제39호 박종선류 아쟁산조 보유자인 박종선 선생과 국립국악관현악단 단원으로 구성된 삼현육각 연주와 함께 한국전통무용 공연을 선보인다.

1991년 창단한 김자연무용단은 전국민속예술경연대회 광주시 대표로 출전했으며 월드컵 홍보를 위한 미국 텍사스주 호남검무 순회공연, 2010년 창원아철국악제



호남검무 종합대상(국회의장상) 수상, 2016년 신년맞이 나주 인문학콘서트 호남검무 축하공연 등을 진행했다. 문의 062-232-4764, 010-3649-6093.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피아니스트 백건우 공연 실황 감상

17일 빛고을아트스페이스

'건반 위의 구도자' 피아니스트 백건우(사진) 공연 실황을 감상하는 자리가 마련된다. 17일 오후 7시 빛고을아트스페이스 5층 소공연장.

서울예술의전당 공연 영상화 사업 '삭온스크린(SAC on Screen)' 프로그램으로 지난해 9월 열렸던 공연 실황이다.

러시아 작곡가 일렉산드르 스크랴빈(1875~1915) 서거 100주년을 기념해 마련한 이번 공연에서는 스크랴빈의 24개 전주곡과 라흐마니노프 '소나타 1번'을 연주한다. 다음 작품은 오는 24일 상영되는 유니버설발레단의 '지젤'이다. 선착순 100명 무료. 문의 062-670-7941.



다음 작품은 오는 24일 상영되는 유니버설발레단의 '지젤'이다. 선착순 100명 무료. 문의 062-670-7941.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체육관련시설 2층 상가매매

(에어로빅, 헬스, 당구장, 체육관, 기타) 넓은주차장 용봉, 문흥지구 중심상가

- 전용 289㎡ (락볼링장 옆 점포2칸)
- 매 7억5천만원(근저당 5억) 실투자 2억5천만원

락볼링장 매매

전남대 부근 최신시설 락볼링장 현 성업중 직영하실분 환영

- 볼링장 16레인, 시설비품 일체포함
- 매 26억5천만원 (근저당 20억) 실투자 6억5천만원

문의 010-3647-4747 (급매 조정가)

복성중 28회 친구 찾기

- 상균이, 호승이, 재준이와 28회 졸업생 690명을 찾습니다.
- 복성28회를 아시면 신고해주세요 (매월 28일 정례모임중)

김행권(복성28회 살림꾼) 010-3379-2209

www.솔향기맑은터.com

솔향기맑은터



솔향기맑은터 검색

전남 나주시 남평읍 풍림리 171(풍림죽림길 86)

대표전화 (061)336-0770

솔향기정식 & 돼지갈비 전문점 예약

www.솔향기맑은터.com

061)336-3939



참숯가마

24시간 OPEN!!



- ▶ 다량의 원적외선을 방출하는 불씨는날 화, 목, 토, 일
- ▶ 불씨는 날이 아니어도 화로방에서 원적외선 샤워
- ▶ 사전예약시 컨퍼런스룸, 족구장, 12인승, 25인승 무료이용
- ▶ 멸균작용으로 시 및 바이러스 퇴치에 도움을 주는 목초액 염가공급 1톤 30만원 (양돈, 양계, 한우, 하우스농가대상)



맛의향연



- 단체모임을 위한 8인실, 16인실, 32인실, 56인실 구비
- 행복한 모임을 위한 돼지갈비전문점으로 바뀝니다. 돼지갈비, 매콤갈비찜정식, 딱갈비정식, 솔향기정식
- ▶ 돼지갈비를 드시면 참숯가마 찜질방 50% 할인
- ▶ 주말 및 연말연시 모임은 사전예약으로 차질없게

사전예약시 ▶ 12인승, 25인승 차량 무료운행 / 컨퍼런스룸, 족구장 무료이용 가능